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부속가]** 시편 22(21), 8-9, 17-18, 19-20, 23-24(◎ 2~)

**[제 1독서]** 사도 10, 34-37, 43

**[화답송]** 시편 118(117), 1-2, 16-17, 22-23(◎ 24)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독서]** 콜로 3, 1-4 또는 1코린 5, 6-8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영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1코린 5, 7, 8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요한 20, 1-9

<또는 마르 16, 1-7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 13-35>

성가	8시 미사	입당 130	봉헌 129	성체 161 166	파견 136
	11시 미사	입당 130	봉헌 129	성체 161 166	파견 136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예수부활대축일(4월 5일)	부활 제2주일(4월 12일)		부활 제3주일(4월 19일)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1구역 : 채성일 토마스	정애리 스텔라	2 구역 : 이주황 요한	정일환 프란치스코	3 구역
제 1 독서	1구역 : 최대연 다니엘	정일환 프란치스코	2 구역 : 유진숙 수산나	채성일 토마스	3 구역
제 2 독서	1구역 : 정진희 테레사	정영희 글라라	2 구역 : 손정옥 리디아	임승원 루카	3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알렐루야 주 참으로 부활하셨네”

이른 새벽 허탈한 마음으로 찾아간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며 누린 환희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렐루야”의 노래처럼 희망과 기쁨의 멜로디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참으로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의 역사이며 의미 그 자체이십니다. 배신과 갈등 그리고 불평등 속에서 그분께서는 언제나 억눌리고 버림받은 자와 고통 받는 이들의 고통을 나누시며 그들의 아픈 마음에 용서와 화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당하고 억울함 속에서 약한 이들과 어린 이들을 감싸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속에서 생활 하셨습니다. 굶주림과 아픔 속에서 그분은 평생을 통해서 가난 속에 사셨지만 배부름과 건강을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그분은 굴복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로마 5, 20)의 증언처럼 우리에게 죄가 많아 불행한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총과 축복으로 내려오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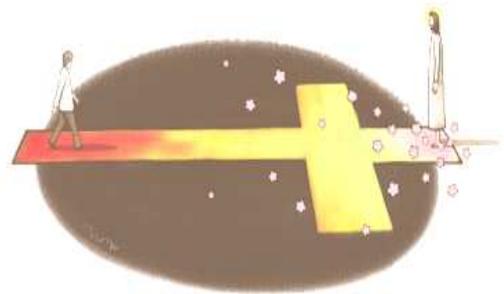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 19)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의미와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평화의 은총을 통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은총은 그간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 죄에 대한 은총의 승리로 거듭나게 해 줄 것입니다.

지난 사순시기를 금욕과 희생의 시간으로 보내신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부활이 큰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부활 달걀을 가족과 이웃들과 기쁘게 나누듯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배려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크나큰 축복과 사랑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위로를 주시어 위안과 기쁨이 가득한 부활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윤승일 유스티노 신부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부활은 건너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물을 섬기는 삶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에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너감입니다.  
이 건너감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글\_전송규 신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생명의 말씀

빈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빈 무덤 이야기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부활 증언은 ‘그 때’에 대한 묘사부터 조금은 색다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흔히 초대교회 부활신앙 정식에 자주 등장하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간 첫날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 막달레나의 특별한 예수님 사랑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20,2)

사실, 그 당시 무덤을 강탈하는 강도의 예는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기 40년경 클라우디우스 (Claudius) 황제가 내린, ‘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신을 훔치거나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운 자는 무거운 형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이니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아마포가 놓여 있고 얼굴을 씻던 수건이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는 복음사가의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어느 강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상황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강도가 ‘수건을 따로 잘 개켜둘’ 리도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당시로써는 꽤 비싸고 값나가는 ‘아마포와 수건’을 두고 갈 강도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직접 묘사가 아니라 ‘빈 무덤’에 대한 기사로 증언됩니다. ‘부활 사건’ 그 자체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고 필설의 묘사를 넘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었다’라는 표현은 단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이해되는데, 문장 표현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홀로 ‘보고 믿은’ 것으로 나오지만, 어찌 그 제자만 그 순간을 보고 믿었을까요.

자신의 한 많은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른 새벽부터 달려온 마리아 막달레나나, 결정적 순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나 모두, 그 ‘빈 무덤’을 본 순간, 생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셨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남’을 그때서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 때로는 우리 고단한 삶이 ‘무덤’에서 안식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갖가지 형태의 ‘무덤’이 우리를 가두고서는 ‘침’을 준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치와 타협하고 안주할 때, 우리는 ‘무덤’ 안에 머무르는 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새롭게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정순택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 세례와 할아버지

### 말씀의 향기

때때로 삶이 힘겹고 버거울 때면 홀로 빈 성당을 찾습니다. 가운데에 자리하신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 속 원망과 고통이 어느새 말끔히 사라집니다.

유치하지만 십자가 앞에 작은 고통을 살짝 꺼내놓고 예수님보다는 덜 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사실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이미 축복과 구원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2004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배우로서 한참 연기에 몰두했던 때문에 어떻게 기도 모임을 갖고 교리공부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영성체와 고해성사를 갈망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세례성사를 기다렸습니다.

매주 ‘서울주보’ 1면에 나오는 성화 그림을 보며 예술가들의 신앙고백에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목련이 만개한 4월, 저는 그렇게 즐겁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에는 신자가 아닌 친할아버지께서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성당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 꼭 모시고 싶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작 기대는 하지 않았습다. 손녀로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다음 해 사순절에 ‘요셉’으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4월이 오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일들입니다.

세례의 축복을 받고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93세 고령의 할아버지가 편안하길 바랐습니다. 함께 성당에 나가자고 용기를 내어 재촉했지만 할아버지는 “너나 열심히 다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세’를 받으면 환자들이 병상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본당 원장 수녀님의 말씀도 전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다. 극심한 통증에 할아버지는 동네 내과의원에서 처방해준 모르핀을 투약하며 온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나 고독해 보였습니다. 잠시나마 기력이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 병원의 원장님이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냈습니다. 진료가 끝날 때면 환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기도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께 ‘대세’를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원장님은 이미 할아버지께서 ‘요셉’으로 대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뻐할 틈도 없이 바로 본당에 할아버지의 성함과 세례명을 등록했습니다. 사순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평생 받을 기도를 장례식을 통해 모두 받고 가셨습니다.

봉사 단체를 통해 온 수백 명의 신자들은 “좋은 시절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며 일면식도 없는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슬픈 연도를 목청껏 바쳐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은 위로와 보살핌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큰 축복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생합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시나이까.” (시편 8,5)

김현정 소화대리사  
배우/화가

성경산책

회개를 선포한 세례자 요한

로마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사회는,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유다 광야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해 사람들에게 회개 하고 세례를 받도록 설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 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둘렀으 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 예언자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았던 분이 많 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며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점적으로 설교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3,1-12 / 마르 1,1-8 / 루카 3,1-9. 15-18 / 요한 1,19-28

세례자 요한은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예수님과는 인척이며 약 반년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자 요 한의 부모님은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즈카 르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 를 갖기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늦둥이였습니다. 그 래서 아버지 즈카르야는 처음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 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5-25

성모님이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두 분의 만남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뱃속 에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산길을 넘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 대목은 우리가 매일 바치는 삼종기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39-79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뿐 아니라,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 다. 세례자 요한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소리 를 외쳤던 예언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헤로데 왕까 지도 호되게 질책해서 미움을 사고 감옥에 갇히게 됩 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6,17-29

허영엽 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 )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 )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 )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 )과 ( )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 3,11)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4월 7일 화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가족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4월 9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신마태오(현규)	김안드레아(명환)
	생	이정우	전수산나
4월 11일 토	생	황마르코(문환)생일	익명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9	201	-	280
헌 금	\$525	\$1,062	-	\$1,587

< 교무금 > \$7,230

김민규(1-2) 송분학(1-4) 최은용(1-3) 정일양(3)  
 한재구(1-3) 이정연(4) 송인환(1-4) 이정숙(3-4)  
 조덕행(3-4) 이병열(4) 전덕천(3-4) 강수영(3)  
 황현숙(3-4) 김영민(3) 이건용(4) 구창희(1-3)  
 최응일(1-2) 황문환(1-4) 윤성진(3-4) 박호영(4)  
 신재극(1-4) 이순열(3-4) 이종규(1-3) 김영희(4)  
 김광석(3-4) 추혜성(1-4)

< 성소후원금 >

박호영(4)

< Bishop's Appeal >

김영민(3)

< 감사헌금 > -

< 부활초/꽃봉헌 >

윤순의 \$100 지규엽 \$300



~~~~~ 오늘은 각 구역에서 음식 판매를 합니다. ~~~~~

- 공 지 사 양 -



♪ ♪ ♫ ♪ ♫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 ♪ ♫

- ◆ 환자봉성체 : 4월 10일(금) 아침미사 후부터
- ◆ Rice Bowl 봉헌 : 성당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 요아킴/안나회 : 다음 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 대건 장학생 선발  
4월 12일(다음주)부터 지원서를 친교실이나 사무실에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 성당 웹사이트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 서중부 여성 제10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대상 : 견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여성  
비용 : \$250  
신청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4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콜랜드    | 4월 18일(토)6시 | 교육관 107호실 |
|    | 샌리엔드로 W | 4월 18일(토)6시 | 박호영헬레나덕   |
|    | 실버반     | 4월 25일(토)2시 | 파운더스룸     |

◆ **Brown Bag 봉사 활동에 도움 주신 분**

임승주 \$100 주봉진 \$100

◆ 부활 전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신 전례단과 성가대, 각 구역반의 반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신임 시설관리분과장으로 최환준 분도 형제님이 임명되었습니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

\* 어제 부활성야에 김규봉 토마스 모어(뜨락회)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 첫영성체를 축하합니다. \*\*\*

\* 어제 부활성야에 신다운 도로테아 자매가 첫영성체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쟼마(4/11) : 배쟁마, 원명숙, 김영순, 양정화

**주일학교 소식**

- 3월 29일, 4월 5일 : 주일학교 방학
- 오늘 부활 합동미사

**안국학교 소식**

- 4월 11일 : 복가주협의회주최 구연동화대회
- 4월 18일 : 미술특강
- 4월 25일 : 한국어능력시험